

◎IP를 알자

- 엑스포와 지식재산 01
- 한국IP뉴스 05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서울서 MLB 개최! 위조상품 대책 및 지재 관련 계도 활동도 활발

◎한국 IPG의 활동

- '한국의 상표 최전선 2024'를 주제로 제39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07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사무국 메시지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퀴즈를 맞춰봅시다!

현재 한국 특허청(KIPO) 분청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 ① 대전 ② 세종 ③ 인천

※ 정답은 본지 2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IP를 알자

엑스포와 지식재산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마쿠마쿠'

2024년은 스포츠 제전이라고도 불리는 2024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해로 일본 선수도 한국 선수도 대활약하는 대회였습니다. 시차 관계로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기술, 문화, 예술의 국제 행사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EXPO 2025 OSAKA, KANSAI, JAPAN)가 개최됩니다.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2025년 4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는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마쿠마쿠'가 화제입니다. 공식 HP에 따르면 '세포와 물이 하나가 되어 탄생한 신기한 생물로 정체는 알수 없음. 빨간 부분은 '세포'로 분리되거나 늘어난다. 파란 부분은 '맑은 물'로 자유롭게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마쿠마쿠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데, 현재는 사람을 흉낸 것이라 한다. 그러나 너무 모습을 바꾼 나머지 원래 형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밖에서 햇빛을 쬔 것이 힘의 근원이라 한다. 비오는 날도 많이 좋아해서 빗물을 몸으로 흡수할 수 있다. 마쿠마쿠는 개막 전부터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리고 2025년에 개최되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합니다. 마쿠마쿠는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해 홍보 효과가 뛰어나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EXPO 2012 YEOSU)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대전세계엑스포가 (The Taejeon International Exposition, Expo'93) 1993년에 개최되었습니다. 대전엑스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가 존재했습니다. 노란색 남자 외계인 '꿈돌이'를 기억하시나요? 꿈돌이의 캐릭터와 이름은 상표권을 취득한 상태로 철저한 지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Registered	☒ [7] (No Title)
	Classification Code : 29 30 Application No. : 502090017655 Registration No. : 4002029120000 Appl. Publ. No. : Vienna Code : 010115 011305 040522 Applicant : TAEJEON EXPO PARK CORPORATION Application Date : 2009.12.11 Registration Date : 2010.05.13 Appl. Publ. Date : Agent : Kim Byoung Ik Kang Kyung Chan Byun Chang Kyu
☐ Registered	☒ [2] 꿈돌이
	Classification Code : 27 Application No. : 4020220223964 Registration No. : 4022026890000 Appl. Publ. No. : 4020240031677 Vienna Code : Right holder(current) : Daejeon Tourism Organization Applicant : Daejeon Tourism Organization Application Date : 2022.12.06 Registration Date : 2024.05.31 Appl. Publ. Date : 2024.02.27 Agent : K28 International Patent AND Law Firm

출처: KIPRIS

대전엑스포가 개최된 대전광역시에는 한국 특허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부합동청사가 있는 곳으로 주요 기업의 연구소와 KAIST 등 대학교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낸 도시에서 개최된 엑스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약 한 시간 이동하면 대전역이 보입니다. 대전역에는 2024년 8월 기준 ‘곰돌이와 대전여행’이라는 굿즈샵 겸 관광 안내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역을 지나는 곰돌이를 테마로 한 전철 차량이 운행중이며 관련 홍보 간판도 지하철역에 마련되었습니다. 대전역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한국 특허청이 있는 정부합동청사와 엑스포과학공원이 보입니다. 대전세계엑스포 개최 장소였던 엑스포과학공원에는 엑스포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한빛탑이 있으며 타워 앞에는 곰돌이와 곰순이 동상이 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포토스팟으로 유명합니다. 한빛탑 앞을 흐르는 강 위에 설치된 엑스포다리는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빛을 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위치한 백화점에는 ‘꿀잼도시 대전홍보관’이 운영중으로 다양한 곰돌이 굿즈와 대전 관광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에도 곰씨 패밀리에 대한 소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전역 근처에는 곰돌이 하우스라는 굿즈샵 겸 정보 제공 매장이 운영중입니다. 2024년 8월에 개최된 ‘2024 대전 0시 축제’에서도 곰돌이를 앞세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곰돌이 상표권의 취득과 갱신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오늘날의 활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곰돌이는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로 탄생했지만 현재는 대전광역시 캐릭터로 활약하며 곰돌이의 지재 자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로 탄생한 마쿠마쿠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 특허청도 최근 대전지역의 관광 지원을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재의 활용 범위 확대가 앞으로 기대됩니다.

본지 다음 페이지에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관련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PG}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지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1년 이후 5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 조언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퀴즈 정답

정답은 ① 대전입니다. 한국 특허청은 서울사무소도 있지만 본청사는 서울역에서 KTX로 1시간 정도 이동한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대전 소망 및 야간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여행일정 짜기'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대전광역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ETRO 서울사무소 지식재산뉴스(2024년 7월 15일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세계 박람회가 일본 오사카, 간사이에서 열립니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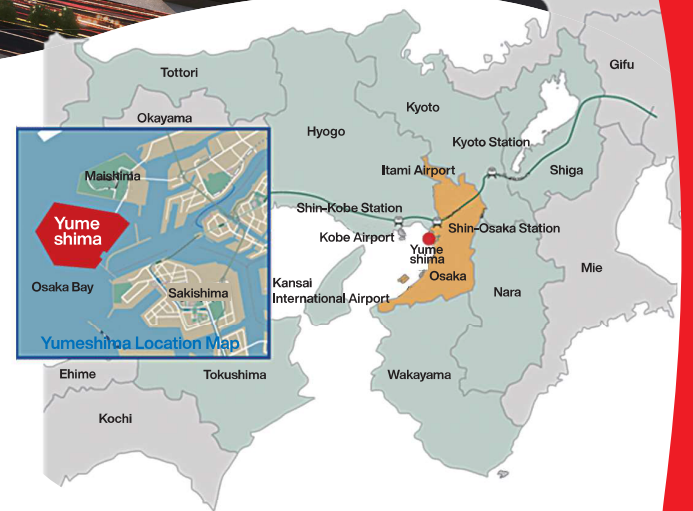
테마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

- 서브 테마**
- (1) Saving Lives (생명을 살리다)
 - (2) Empowering Lives (생명에 힘을 더해주다)
 - (3) Connecting Lives (생명을 이어주다)

컨셉트 미래사회의 실험장

개최기간 2025년 4월 13일 (일) ~ 10월 13일 (월)

개최장소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엑스포 장소인 유메시마는 오사카 만 지역에 위치한 인공 섬입니다. 50km 이내에는 일본의 고대 수도인 “교토”와 “나라”가 있습니다. 미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매력적인 관광지가 오사카-간사이 지역 내에 있습니다.



엑스포 2025

공익사단법인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협회



테마사업 "생명의 빛 프로젝트"

● 생명의 빛 프로젝트는 엑스포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8명의 테마사업의 프로듀서가 이끄는 파빌리온에서 개최됩니다. 이 파빌리온은 '시그니처 파빌리온'이라고 불립니다. 시그니처 파빌리온과 시그니처 이벤트를 통해서 리얼과 가상을 결합한 경험이 되어 있으며,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개념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8명의 프로듀서가 주도하는 생명의 빛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체험은 사람들이 생명을 탐구하고 창의성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다"  가와세 나옴 영화 작가	"생명을 공명시키다"  미야타 히로아키 게이오대학 교수
"생명을 이어 나간다"  코야마 군도 방송작가, 교토예술대학 부총장.	"생명을 확장하다"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 대학 교수, ATR 이시구로 히로시 연구소 객원 소장
"생명을 함양하다"  카와모리 쇼지 애니메이션 감독, 메카닉 디자이너, 비전 크리에이터	"생명을 확장시키다"  나카지마 사치코 음악가, 수학 연구자, STEAM 교육자
"생명을 이해하다"  후쿠오카 신이치 생물학자, 아오야마카쿠인대학 교수	"생명을 알고 있다"  오치아이 요이치 미디어 아티스트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마쿠마쿠



● "마쿠마쿠" 소개

"세포와 물이 하나 되며 탄생한 신비한 생명체, 그 정체는 불명. 빨간 부분은 나눠져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세포'. 파란 부분은 흐르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맑은 물'.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을 흉내 낸 모습이 현재의 모습. 하지만, 모습을 너무 많이 바꿔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쏘이는 것이 건강의 원천. 비 오는 날도 아주 좋아해서 비를 몸 안으로 가져와 영양소처럼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쿠마쿠는 엑스포 개막 전부터 자신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고, 2025년에 개최될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꿈입니다."

● 프로필

"출생지: 간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은 샘.
성격: 사람들에게 친근하지만 출렁거려서 실수가 잦음
특기: 다양한 모양으로 형태를 바꾸기, 비 갠 뒤 무지개 발견하기
좋아하는 것: 모든 생명체, 사물과 접하는 것"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한국이 특허등록 세계 1위

| 한국특허청 (2024.4.8.)

대형 TV와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한국이 특허등록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등록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3년→'22년) 마이크로 LED 기술의 등록건수는 '13년 540건에서 '22년 1,04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 7.6%를 기록했다. 등록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한국이 23.2%(1,567건)로 가장 많았고, 2위일본 20.1%(1,360건), 3위중국 18.0%(1,217건), 4위미국 16.0%(1,080건), 5위유럽연합 11.0%(750건) 순이었다.

주요 등록인으로는 1위LG이노텍(6.0%, 404건)이 1위를 차지했고, 2위삼성전자(5.7%, 384건), 3위일본의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4.7%, 315건), 4위삼성디스플레이(3.6%, 240건), 5위중국의 징둥팡(BOE)(3.3%, 223건) 순이었다.

특허청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마이크로 LED 기술에서도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LED 칩의 제조기술과 마이크로 LED 전사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와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② 한·일·중 정상, '미래 지식재산협력 청사진' 제시 | 한국특허청 (2024.5.28.)

특허청은 5.27.(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등 3국 정상들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동(同) 10년 비전에는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특허데이터의 주기적인 교환과 대민접근성 제고, △ 3국 간 협력성과를 다른 국가 또는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 3대 미래협력방향이 담겨 있다.

한·일·중은 지식재산분야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쏠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견고

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③ 특허청 특허심판원,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 한국특허청 (2024.6.11.)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 11.(화)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2007년 설립한 협력체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김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스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성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①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 안과 ②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④ 한국특허청, 선진 5대 특허청장회의(IP5) 주최 | 한국특허청 (2024.6.21.)

특허청은 우리나라,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및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각각 6월 19일, 2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서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①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실현방안, ②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③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가 창의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세계적 혁신도시 서울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적(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P5}

File No.187

서울서 MLB 개최! 위조상품 대책 및 지재 관련 계도 활동도 활발



한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이하 '상표 경찰'이라 한다) 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MLB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개막전을 위해 MLB 관련 위조상품 대책을 실시하였고, 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변 및 온라인 상품 판매 사이트에서도 상표권 침해 관점으로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했습니다.

1. 화제의 서울 개최

이번 대회에 출전한 김하성 선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는 경기장 고척 스카이돔을 본고장으로 활동하는 한국 프로 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이번 MLB 개막전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막전에 출전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 (LA 다저스) 는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야구 선수입니다. MLB 개막전 친선 경기에서는 고척돔이 본거지인 키움 히어로즈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팀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와의 경기도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달아오르게 할 정도로 주목받은 경기 관련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상황에서 위조상품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었습니다.

2. 사전 대응

상표경찰은 개막전 개최 전부터 MLB 측 요청을 받아 위조상품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2월 22일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 및 송례문(남대문) 주변에서 의류도매점 (7곳) 을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2024년 2월 6일~7일) , MLB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61세 남성) 를 비롯한 도매업자는 동대문시장 (2곳) 과 남대문시장 (5곳) 에 거점을 두고 MLB 상표 등을 각인한 운동복과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집중 단속 결과 MLB 6개 팀의 상표 (LA 다저스, NY 양키스 등) 가 사용되어 총 4만 4,341개, 정품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모방품을 압수했습니다.

3. 온라인 모니터링

현재 위조상품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

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위조상품의 유통이 확인되었고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물 및 계정 삭제 등 (366건)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각된 위조상품 사례



(출처: 3월 14일 한국 특허청 보도자료)

4. 경기기간 중 대응

한국 특허청은 경기 개최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역 주변 경찰 등 단속 강화에 나서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많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생활, 문화 등을 전 세계에 소개하게 되는데,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방품 단속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 마무리

이번 MLB 개막전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는 행사였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야구팬들이 의도치 않게 위조상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한 전 세계에 정보가 널리 전달되기 때문에 국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신(新)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되므로 향후 위조상품 대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지재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한국의 상표 최전선 2024’를 주제로 제39회 한국 IPG세미나 개최



개회 인사 장면

회사명 및 상품명은 브랜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권리를 보호하는 상표 제도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출원 내용 및 제도 자체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상표가 각인된 상품을 업사이클링해서 발생한 권리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새로 도입된 '상표공존동의제도' 등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관련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상표 제도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2024년 7월 26일 (한국 서울, 30일(일본 도쿄)에 '한국의 상표 최전선 2024'를 주제로 제39회 한국IPG세미나 (일본 특허청 위탁 사업) 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강연은 한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신산업상표심사과 박재원 심사관, Lee International IP & Law 김민희 변리사, 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이 맡았습니다.

개회사에서는 한국 IPG 오타니 위원장이 2023년 한국 상표 출원 건수가 25만 5천 건을 조금 밑도는 반면 일본 상표 출원 건수는 16만 4천 건이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 건수가 일본보다 9만 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으로 비즈니스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어 온라인에서의 상표를 포함한 지재 제도

및 활용 동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상표와 관련하여 소개하는 이번 세미나를 기대하기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한국IPG 오타니 위원장의 인사 장면

● 한국 상표 제도의 최신 동향

한국 특허청 박재원 심사관은 한국 상표 제도의 최신 동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강연은 한국 특허청이 제작한 한국을 대표하는 추억의 상표 동영상으로 막을 열었으며 과거 출원 건수 추이를 시대별로 보면서 어떤 상표가 출원되어 왔는지 소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하기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gIUAW22BWA> (한국 특허청 (KIPO) 제작)

다음으로 한국 상표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청구제도, 공존동의제도에 대해 각각 상세한 설명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최근 심사 동향으로는, 거절 결정 이유 (33조, 34조)의 비율과 33조 1항 각호에 따른 거절 결정 비율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심사 실무와 관련하여 상표의 마지막 글자가 's' 후

은 ‘x’로 끝나는 경우 어떻게 유사 판단을 내리는지와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상표명이 공서양속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 여부도 소개했습니다. 가상 환경의 가상상품 명칭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실제 심사 실무에서는 유사군 코드 V(상품) 및 VS(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심사 사례를 활용하며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의 식별력 판단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박재원 심사관의 강연 장면

● 한국의 최근 상표 제도 활용 동향

Lee International IP & Law 김민희 변리사는 한국의 최근 상표 제도 활용 동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한국의 출원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기간에는 출원이 많이 증가했으나 이후 잠잠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원하는 건수는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많았다는 점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상표 출원 심사 기간 추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심사 전담 부서가 마련되었고 우선심사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존동의제도에 대해서도 업계 반응 및 제도 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표 동향으로서 리폼 및 업사이클링한 물품의 상표권 문제 및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때 항상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체 상표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권리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변리사의 강연 장면

● 한국의 지식재산 최신 이슈

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부소장은 한국이 주최한 국제회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중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의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계정보에 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무역수지는 저작권 흑자폭 상승에 따라 전체 수지도 흑자가 되고 있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세미나는 몇 년 만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국 지재정보를 주제로 개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 아닌 대면 형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깊은 이해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기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